

하쿠산 정상에 해돋이 의식

일본 3대 영산 중 하나인 하쿠산이 신성한 의식의 장소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의식에 임하기 위해, 등산객들은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해발 2,702m인 고젠가미네의 정상에서 일출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출 1시간 전에 무로도의 신사에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신관은 높은 굽의 나무 나막신을 신고 험준한 길을 나아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신관은 바위에 올라가서 일출을 향해 “만세!”를 선창하고 따라서 외치도록 그 자리에 모인 등산객에게 촉구하며, 새로운 날의 도래를 환영하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등산객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 영봉의 힘을 체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해돋이 의식은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